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1조 발행

2월 한달 할인을 최대 15% 상향

'전남상품권 chak' 앱서 정보 제공

전남도가 올해 22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어치를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9년 처음으로 1100여억원을 발행한 뒤 매년 발행 규모를 확대해 2023년 1조원까지 늘렸다.

전남도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을 발행하기 위해 국·도비 325억원을 지원한다.

할인율은 5~10%를 상시 유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

간 할인율을 10~15%로 대폭 상향하고, 1인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광양시는 평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10%, 1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2월 한 달 할인율은 15%, 1인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이 외에도 15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한 달간 확대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할인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남도와 한국조폐공사의 협약에 따라 1월부터 전남도 광역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전남상품권 chak'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군별

할인율 및 1인당 구매한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남상품권 chak' 앱에서는 모바일 정보무늬(QR)결제, 주변 가맹점 찾기, 충전금액 환불 등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충전·결제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지원국장은 "고급리·고물가·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1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며 "도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 상권도 살리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연 48만원 상당

임산부·수도권 향우 지원도

전남도가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3000명에게 사업비 14억원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2796명에게 사업비 13억원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한다.

'수도권 향우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의 애郷심을 고취하고 있다. 향우 1000명에게 사업비 5억원으로 1인당 연 50만원(자부담 25만원 포함) 상당의 꾸러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신청을 바라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3월 25일까지 임신부 자격검

증시스템(www.ecomall.com)에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는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되고, 수도권 향우는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지 확인이 가능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고향(출생지) 시군(친환경농업과)에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 내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각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바이오진흥원·순천대·순천시, 바이오 전문기업 협약

롯데중앙연구소·㈜휴온스 등 참여 지역 인재 양성·공동연구 동향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 국립 순천대(총장 이병운)가 지난 7일 대학 본부에서 순천시, 국내 3개 바이오 전문기업과 함께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연물 의약품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전남바이오진흥원 및 국내 굴지의 바이오 전문기업, 지자체, 대학이 의기투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이오 전문기업으로는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연구소인 롯데중앙연구소, 글로벌 품질의 혁신적 제약기업인 ㈜휴온스, 자연 친화적 제품을 실현하는 생활 밀착형 제약회사 동성제약(주)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



해 인적·물질 자원의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한 포괄적 상호협력, 지산학연 간 긴밀한 파트너십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인 롯데중앙연구소, ㈜휴온스, 동성제약(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공동연구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네 오고 있는가'...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지난 5일 열린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열린 2024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관계자 역량 교육.

29개 마을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남도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꾸준한 인기로 부응해 올해도 29개 마을을 선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해 전국 지원사업으로 확대됐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돼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마을 운영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마을별로 2월 중순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3~4월경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영농·일자리 체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고,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거나 일부 마을

에선 천연염색, 효소를 이용한 발효식품 제조 기술 전수를 하는 등 마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를 통해 지역 여건, 마을별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마을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숙박비 일부와 프로그램 체험비를 지원한다.

박희경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글귀처럼 전남 농촌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살아보면 전남만의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남을 이해하고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2497명이 참여해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교통편 없는 소외도서 향로 추가 선정

완도 허우도·신안 초란도·사치도 3곳 운영 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소외도서 향로 운영 공모사업에서 교통편이 없는 완도군과 신안군의 3개 도서 향로가 선정됐다. 이번 완도군과 신안군의 3개 향로 공모 선정으로 지난해 여수시 등 3개 시·군, 6개 향로에 더해 올해부터는 9개 소외도서 향로를 운영하게 된다.

소외도서 향로 운영 사업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향로를 확보해 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완도군 허우도와 신안군의 초란도, 사치도는 평균 인구 수 30여 명으로 그동안 정기 여객선 등 교통편이 없어 개인 선박을 이용하며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정기적인 교통수단이 생기기면서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용 부담과 안

전상의 문제들이 해결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3개 향로는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및 선박 안전성 점검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섬 주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부터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섬 주민 천연여객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필품을 포함한 유류와 LPG가스 등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해 섬 지역의 물가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현미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지난해 6개 향로에 이어 올해도 소외도서 3개 향로를 추가 확보해 섬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게 됐다"며 "해수부 추가 공모에도 적극 참여해 향로를 더 추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